

신앙 훈련 교재로 널리

1 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 신학 1, 2

오랜 성찰과 연구를 통해 집필한 대중적 신학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깊이 뿌리박힌 애국된 신앙과 신학에 대한 탁월한 해독제!

“이 책을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다. 아울러 이 책은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강영안 / 서강대 교수 · 기술실 공동대표

송인규 지음/민음의 글들 183 · 184/A5신변형/각권 296면/각권 8,500원

2 송인규 교수의 신앙 카페 1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성경적 · 신학적으로 핵심을 꼭꼭 짚어 주는, 송인규 교수의 예배 특강! 주보에 나오는 현재의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해서 무슨 목적으로

로 정해졌는지와 더불어 예배 요소를 조목조목 짚어 가며 알려 준다. ※각장마다 토론을 위한 질문 수록

※목회자 · 직분자 · 청년 모두를 위한 알찬 예배 교육서!

송인규 지음/민음의 글들 197/A5신변형/240면/7,800원

3 성경, 흐름을 잡아라

성경 66권을 하나의 맥락으로 조명해 주는 ‘유기적 성경 연구서’. 성경을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을 위한

개인 성경연구서와 평신도 리더 교재로 적합. ※미국 개혁 교단 장년부 교재,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교재

존 팀어 지음/박혜영 · 이석열 옮김/A5신변형/424면/12,000원

4 열을 동안 배우는 주기도론 학교

수도원적 영성이 임영수 목사가 쓴 주기도론 교육서. 주기도론 강해를 토대로, 열흘에 걸쳐 하루 한 장씩 주기도론

각 구절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새신자 · 구역 · 소그룹 교육 교재로 적합, 각장 복습 · 토론을 위한 질문 수록

임영수 지음/A5신/128면/4,800원

5 2주 동안 배우는 사도신경 학교

수도원적 영성이 임영수 목사가 쓴 사도신경 교육서. 저자의 통전적 역사관과 통찰력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강해를 바탕으로,

2주간에 걸쳐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게 역었다. ※새신자 · 구역 · 소그룹 교육 교재로 적합, 각장 복습 · 토론을 위한 질문 수록

임영수 지음/A5신/224면/6,500원

6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불신자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열린예배의 모든 것. 불신자를 위해 수년간 열어 온 열린예배를 바탕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관해 실제

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책. ※예배 인도자 · 봉사자 필독서

에드 답슨 지음/박혜영 · 김호영 옮김/276면/7,000원

7 새신자반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새신자 양육 기본교재. 이재철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고 양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해 쓴 쉽고도 명쾌한 스테디셀러 신앙교육서. ※새신자 · 구역 · 직분자 훈련 교재로 적합

이재철 지음/A5신/400면/9,000원

8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큐티선교회 설립자인 저자가 들려주는, 큐티로 새롭게 변화된 20년 삶과 큐티 이야기. 고된 시집살이, 가솔, 남편과의

사별 등 온갖 역경을 통해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온 저자의 간증과 자신만의 큐티 노하우가

강동적이다. ※여전도의 큐티 교재 · 선물용으로 적합, 홍정길 · 김동호 목사 강력 추천!

김양재 지음/A5신/248면/본문2도/7,800원

“어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서 낮이고 밤이고 책을 읽었다.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지미 카터/미국 제39대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

검증받은 책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에 도전하는, 진정한 인생역전의 가르침!

-〈청년아, 울더라도 부려야 한다〉(함으로 신실하게)에 이은, 이재철 목사의 세 번째 청년서신

-물질 우상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묻는다 “그대는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는가?”



이재철 李在哲

1946년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의국어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했다. 홍성사 신임이사. 고려대는 청정인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외사와 외세에 당혹한 위기를 계기로 ‘신메이 크리스천’의 영적 위생을 맺고 1971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와 목회학박사를 거쳐 주님의교회를 개척했으며, 개척 초기의 약육대로 10년 임기를 끝내자 사임한 뒤 사임하여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견되어 그리스도인의 한인교회에서 3년간 일하며 여러 해외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지금은 개인 복음전도사로 서울의 어느 작은 교회를 공동주교사로 섬기며 담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책 속으로:《내게 있는 것》저자 서문

이탈리아 출신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자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 받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세계관에 도입하여 체계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그는 주요 저서들을 남겼는데, 특히 《신학대전 Summa Theologiae》와 《이단 논박 대전 Summa contra gentiles》은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라틴 신학의 교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퀴나스의 친구였던 레지날드(Reginald)는 말년의 아퀴나스에게 일어났던 일화를 전해 준다. 어느 날 아퀴나스가 성전 계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계단에 걸려 있는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에 대해 한 좋은 책을 썼구나. 너는 나에게서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이에 대한 아퀴나스의 대답은 단 한 줄이었다.

~주여, 오직 당신만을!(Only yourself, Lord!)

어떤 사제나 학자보다도 인간의 삶(현생)에 대해, 하나님(신학)에 대해 더 많은 질문과 해답을 갖고 있던 아퀴나스의 대답은 지금까지 간단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답변은 없다. 천하를 쥐었다 지라도 하나님 없다면, 삶은 그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지다. 머지않아 공동묘지의 먼지로 사

라질 뿐이다. 반면에 주머니가 텅 비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는 모든 것을 지닌 자다. 그는 이미 영원을 소유한 까닭이다. 함 생명과 진리에 의한 바른 삶의 모태가 공동묘지의 먼지가 아닌 영원, 곧 주님이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작년 1년 동안도 국내의 도처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던진 화두는 ‘내게 있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현재 그대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는가?

물론 큰 재물일 수도 있고, 높은 학식일 수도 있으며, 강력한 권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 잊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답변이 ‘주여, 오직 당신만을!’이 되지 않는 한, 그대는 지금 물거품 인생을 좇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속지 말라. 물거품은 허상일 뿐, 실체가 아니다. 허상으로는 세상을 소생시키지 못한다. 오직 생명의 실체만이 생명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 생명의 실체는 영원하신 그분으로부터만 흘러난다. 이것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한 까닭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오(맹 3:6).”

지 면 안 내

도전 인터뷰

“소원을 잃고 3월 말 이상이 회심”.....

팀 라헤이 · 제리 켈렌스

화제의 신간, 『성 3부작』 출간

기획, 『기타들, 동양사를 읽는다』

신앙 훈련 교재로 좋은 책들

『청년서신』 읽으면 젊어진다?

~청년뿐 아니라 청년층에도 널리 읽히는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두 권



청년아, 울더라도 부려야 한다

“생각하는 20대를 위한 스무 가지 영적 화두”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직업·비전·선택·고난·용기·물질·문화 등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심고 가꾸어야 할 20가지 영적 주제에 관한 ‘동행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청년 세대뿐 아니라 장년층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여러 지역 교회와 평독서나 추천도서로 읽히고 있으며, 군부대 장병들에게도 단제로 읽힐 정도로 화제를 불러 일으킨 장기 베스트셀러. “이 책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막~ 그렇게 살고 싶어서’는 기분 좋은 도전이 있다. ‘그래, 한 번 해 보자’ 하는 의욕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픈 깊은 열망을 심어 준다.” -강수미 PD/포항방송총합



함으로 신실하게

기독교 문화의 복산인 유럽의 한복합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교의 젊은이들을 향한 뜨거운 애정으로 쓴 두 번째 청년 서신, 신학은 있어 신앙은 없고, 기독교 역사(역사)는 유구하며 말씀의 역사(역사)는 죽어버린 유럽 교회를 목도한 저자가 이 땅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 가슴 깊이 설득하는 독후감이 있다.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생동감을 조용하지만 가슴 뜨거운 결단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아마도 저자의 생활과 삶을 통해 만들어진 권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현중 목사/동인교회 담임목자

원음의 글들 191/A5신변형/240면/7,500원

모두가 부자를 꿈꾸는 시대의 청년들에게 띄우는 세 번째 청년서신

내게 있는 것

황제의 논리-맘몬의 논리로 살 것인가? 주님의 논리-영원의 논리로 살 것인가?

물질 숭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 그들 내면의 중심이 무엇을 정조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돌아보게 하는 울곧은 영성의 소리. “앞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는가?” 묻는 ‘묻은 소리’(直言)는, 부자를 욕망하는 이 시대정신의 충성을 예리한 검처럼 파고든다.

차례: 1. 믿음의 논리 2. 믿음의 자리 3. 믿음의 원천 4. 믿음의 틀

이재철 지음 | 원음의 글들 199 | A5신변형 | 280면 | 8,500원 | 본문 2색



Tim LaHaye

Jerry B. Jenkins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북미에서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킨스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책상도 중요하지만 그걸 소설화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라헤이: 제가 대답할 질문이군요. 저는 휴거와 7년 대환난에 대한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에 앉아서 조종사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휴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저의 구상을 소설화시켜 줄 적인자를 몇 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여기 제인 제리

제킨스: 팀 라헤이 박사님과 팀데일하우스 출판사에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소설을 써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그전에 이미 100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고 수천 편의 글을 기고했던 전문 작가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도무지 글이 안 써지’는 작가의 고충을 토로할 때마다 피식 웃었던 사

“3천 명이 넘는 미국인을 회심시킨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 저자, 팀 라헤이·제리 제킨스

람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도무지 일이 안 되는’ 노동자의 고충을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까? 저는 글쓰는 건 직업이나 그냥 앉아서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가올 사상 최대의 우주적 사건인 휴거와 대환난에 대해 소설을 써낼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더군요. 저 자신의 한계를 그토록 절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았고 머리는 계속 멍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일년이 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그의 회고록을 집필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님의 생애를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의 경험이 뜻밖에도 《레프트 비하인드》를 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의 청소년판이 어떻게 해서 쓰이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킨스: 처음에 《레프트 비하인드》에 기초한 청소년판을 써 보자는 제안을 한 것은 출판사 쪽이었습니다. 팬량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이전에 많은 청소년물을 써 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원래 시리즈를 그냥 쉽게 쉽게 바빠 쓰

는 정도가 아니라 독자층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세에서 16세까지 네 명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되었지요. 이들이 7년 대환난 기간을 지나면서 성장하는 모습은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시리즈 초반부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름의 모험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때때로 신앙인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숨기도 해야겠죠. 대강 이런 이야기를 만들자는 게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출간된 청소년판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았고, 많은 독자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러한 관심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라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궁극적 승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모두들 동의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 몇 가지 유의

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한 시대에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증거에 대한 더욱 큰 열정을 갖게 됩니다. 셋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물을 앞두고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 선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끝으로,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은?

제킨스: 1995년에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가 시작된 후로 저희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이 시리즈를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세계 각국의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리●홍승학/전문번역가

※팀 라헤이와 제리 제킨스, 그리고 《레프트 비하인드》 인터넷 홈페이지(www.lefthind.com) 등에서 발행 번역.

●(송인규 교수의 신학기행) 시리즈는 그리스도인이 꼭 읽어야 할 신앙생활 기본에 접근하고 싶어 하게 이야기하고자 개설한 오디오 시리즈이며, 2,3집도 출간되었습니다.

송인규 교수의 신앙기행 1

동인지 교수의 신앙기행

아는만큼 누리는 예배 “지금까지 이런 예배 교육서는 없었다!”

성경적·신학적으로 핵심을 꼭꼭 짚어 주는 예배 특강! 대다수 교인들은 주보에 나오는 현재의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하여, 무슨 목적으로 정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반 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분자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각장마다 토론을 위한 질문 수록 목회자·직분자·청년 모두를 위한 알찬 예배 교육서!

아는만큼 누리는 예배

송인규 지음 | 믿음의 글들 197 | A5신변형 | 240면 | 17,800원

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신학 ① ②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뿌리박힌 왜곡된 신앙·신학에 대한 탁월한 해독제! “이 책을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다. 아울러 이 책은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 라벨링/서경대 교수·기독교 문화연구소

송인규 지음/믿음의 글들 183·184/A5신변형/각권 286면/각권 8,500원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우리 시대 모든 딸들의 성숙과 성장에 바쳐진 책

-현대사회에서 딸들을 강하게 키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젊은 여성, 여성 독회자·신학생, 여성적 전공자, 모든 딸들의 부모·친구들을 위한 책

강한 딸 키우기

리사 맥민 지음 | 홍성학 옮김 | A5신변형 | 416면 | 13,000원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의 행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딸들을 강하게 키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딸들이 자신감과 독립심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개발하여 점차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 및 남자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딸들’의 성장과 성숙에 바쳐진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딸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지혜롭고 정의롭게 세상과 관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씩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보여 주며, 그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치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돕고 있다.

“우리가 읽은 가장 사려 깊고도 때로 도발적인 양육서

가운데 한 권이다. 오늘날의 문화에서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기 원한다면, 이 책의 실제적인 조언과 성경적 통찰이 그렇게 되도록 도울 것이다.” -레즈&세슬라 페로트/퍼시픽 대학교 교수
“우리의 딸들을 강인하고, 능력 있고, 자기를 실현하는 여성이 되게 하는 데 바쳐진 흥미진진한 책……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머니들과 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주디&제 볼스워/풀튼 신학교 교수
“모든 부모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그 부모에게 딸이 있든, 아들이 있든 상관없이!” -제리 버즈/워튼 칼리지 교수

▶주요 차례
남성과 여성: 그 기원과 함축적 의미, 딸들과 자신감의 상관 관계, 딸들과 독립심에 대하여, 육체의 본질, 성의 본질, 남성을 친구로서 친구 이상의 존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들과 딸들, 어머니들과 딸들



Lisa Graham McMinn

리사 맥민

미국 워튼 칼리지 사회학 교수로 사회학과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다양한 학생들과의 공식 수업과 비공식 접촉을 통한 풍부한 사례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여성 이슈들을 실제적이고도 탁월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남편 마크와 세 딸과 함께 일리노이 주 휘튼에 살고 있다.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청년·대학생들의 지성과 영성을 높이는 책

“그동안 나는 어디서나 안식을 찾아보았지만, 책을 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 토마스 아 켐피스

순전한 기독교

타원지가 극한한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19세기 서구인들이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을 읽고 기독교에서 유물론으로 건너갔다면, 20세기 서구인들은 이 책을 읽고 다시 유물론에서 기독교로 건너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 - 동아일보 ※ 2001 기독교출판문화상 번역역우수상(일반신앙부문) 수상도서

장경철·이종태 옮김/믿음의 글들 185/A5신변형/양장/352면/12,500원

대천덕 자서전-개척자의 길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의 자서전.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라고 권면하는 그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실려 있는 사진이 생생한 감동을 더한다.

※ 1999 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평신도 부문) 수상도서

대천덕 지음/양혜원 옮김/믿음의 글들 167/A5신변형/양장/268면/8,800원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은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찾아온 간증의 백미. 70년대 청계천에서 도시 빈민들과 한 몸이 되어 살았던 청년 김진홍(현 두레교회 담임목사)의 뜨거운 이야기가 복음과 삶의 역동적인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김진홍 지음/믿음의 글들 6/A5신/208면/6,500원

회복의 신앙

“중생”을 체험하기까지 신대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자가, 참 신앙의 본질을 여섯 가지 완결성을 갖춘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깊은 주제와 생생한 예화

가 감동적인 책. 이재철 지음/믿음의 글들 171/A5신/272면/7,000원

나의 세계관 뒤집기

한국 라브리 총무 성인경 목사가 영국 라브리에서 영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균형잡힌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성인경 지음/믿음의 글들 161/A5신/276면/7,500원

참으로 신실하게

기독교 역사(歷史)는 유구하고도 말없는 역사(故事)는 죽어 버린 유럽 교회를 목도하며 신앙의 본질을 숙고한 저자가 이 땅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영성의 아프리카즘: “기독교의 핵심—말씀, 믿음, 구원, 삶 이 네 가지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단단히 구명하고 있는 책!” - YES 24 편집자 추천

이재철 지음/믿음의 글들 191/A5신변형/240면/7,500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직업, 비전, 선택, 고난, 용기, 물질, 문화, 은혜 등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가꾸어야 할 20가지 영적 주제에 관한 ‘통쾌한’ 가르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스무 가지 영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 국민일보

이재철 지음/믿음의 글들 177/A5신변형/248면/7,000원

이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젊은 세대와 초신자를 위한 세계관 입문서”
프랜시스 웨퍼 박사의 딸 수잔 웨퍼 맥클리의 특목 뛰는 세계관 이야기. “수잔 맥클리는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하는 데 성공했다.” - Campus Life Mazine

수잔 웨퍼 맥클리 지음/김종철·박찬숙 옮김/A5신변형/224면/7,000원

요셉의 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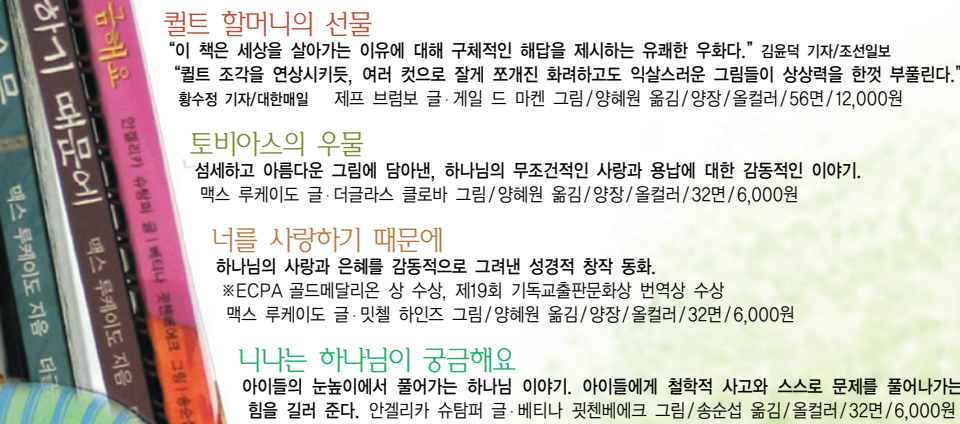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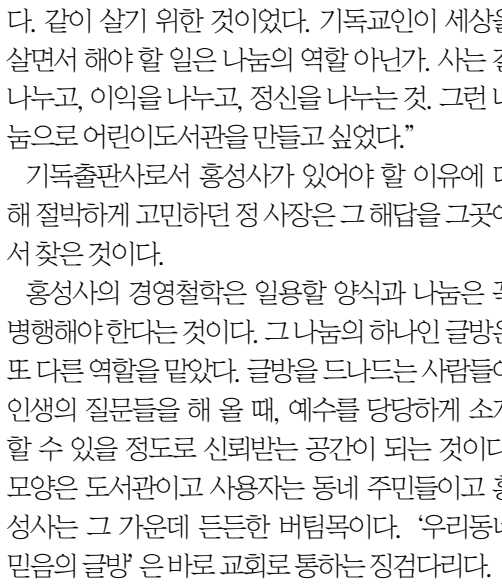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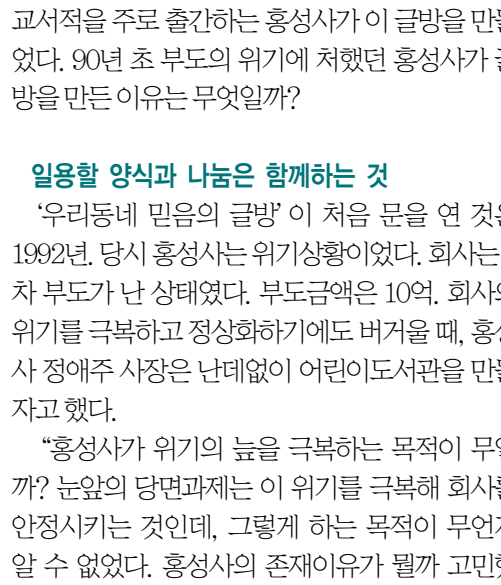
꿈쟁이 요셉이 회고록 형식으로 전하는 인생과 신앙 이야기. 자기 처지와 환경, 가족관계 등에 낙심한 이들에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펼쳐지는 요셉의 ‘회고’는 진한 감동과 도전을 준다. 자유철 지음/A5신변형/240면/6,800원

크리스천 새대가를 위한 대학생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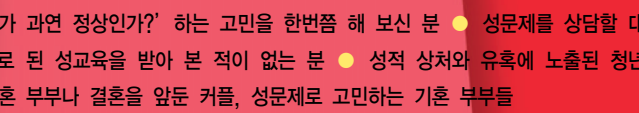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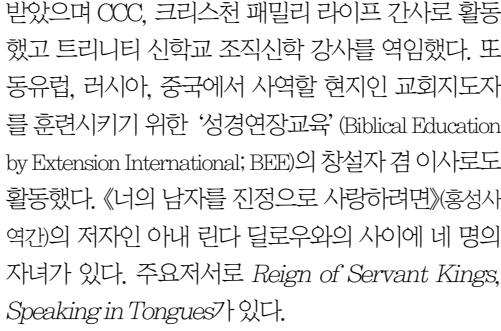
대학생활에 대한 캠퍼스 현장 사역자들과 전문가들의 유익한 조언과 알짜 정보를 모은 대학생활 가이드. “선배들은 갖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팔아서라도 사할

하는 후배들에게 이 책을 사 줄 필요가 있다.” - 고치한/젊은이선교정보연구센터 대표

학원복음화협의회/A5신변형/176면/3,500원



리학대학원 학장, 패서디나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캘리포니아 '바이오피드백 소사이어티'(Biofeedback Society)의 창설 멤버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앙심리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와 죽음, 사색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위험 등에 대해 폭넓은 강연과 저술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여자로 잘 되려는 여자의 생》(홍성사 역간), 《우울증 상담》(두란노 역간), 《우울증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요단 역간) 등이 있다. 하트 박사와 그의 아내 캐슬린 사이에는 지금 어른이 된 세 딸과 일곱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이 시대 크리스천 지성의 힘, 정보 C. S. 루이스 클래식®

“하나님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C. S. 루이스,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1권당 평균 편집기간 5개월, 평균 교정교열 6회, 다른 책의 3배 이상 제작비 소요!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은 영국 C. S. 루이스 협회(C. S. Lewis Company)와 맺은 정식 저작권 계약을 통해 공동인 번역과 세심한 편집으로 심혈을 기울여 펴내는 ‘지성 고전’ 시리즈로서, 루이스의 신앙도서 저작권은 국내에서 오직 홍성사에만 있습니다. 번역과 편집, 제작 기간이 일반 도서의 3~4배 이상 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권 정도밖에 펴내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 S. 루이스(1898-1963)는…… Clive Staples Lewis

“의심할 여지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Time
“지난 4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술가” -Christianity Today
“20세기 복음주의의 어거스틴” -J. I. 페커
“20세기의 존 버니언” -클린 두리스/JVP 편집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인간 본성과 악(惡)에 관한 경이로운 통찰. “탁월하고, 활기 넘치며,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책” -임저버(The Observer)
김선형 옮김 | 민음의 글들 176 | 208면 | 양장 | 8,000원

순전한 기독교

타락지가 극한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화하고 지성적인 필자로 변론한 가장 뛰어난 책” -알리스터 맥그래스
※ 제18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번역 최우수상(일반신앙 부문), 퍼블리셔스 위클리 장기 베스트셀러
장정철·이종태 옮김 | 민음의 글들 185 | 352면 | 양장 | 12,500원

고통의 문제

고통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한, 명징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 “한 권의 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칭송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고통의 문제》가 바로 그 책이다!” -가디언 Guardian
이종태 옮김 | 민음의 글들 189 | 248면 | 양장 | 9,000원

예기치 못한 기쁨

탁월한 번역하는 의문에 대한, 명징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 “그의 겸손한 재능은 명쾌하다. 당신은 그것을 두 가지 수준, 곧 진술한 자서전과 일종의 품격 높은 스펀서로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 타임스 Sunday Times
강유나 옮김 | 민음의 글들 196 | 352면 | 양장 | 13,000원 ※사진 수록

Clive Staples Lewis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빛과소금〉장동석 기자, 대표이사를 만나다

“날마다 실험대 위에서 살아요”

“나는 지금도 80년 가을 ‘한 목사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둡고 고난스런 삶 속에 누구보다 밝은 영혼의 빛과 믿음의 향기가 가득함을 보았을 때의 깊은 감동과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1만 부만 팔려도 기독교 출판에서는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초판을 발행하고 찌꺼한 재미가 없으면 바로 절판하기도 하는 요즘, 그러나 한 책을 20년 동안 100쇄를 발행하며 조용한 감동을 주는 출판사가 우리 곁에 있다. 홍성사가 바로 그 주인공.

일반 문단에서도 100쇄를 발행한 책은 흔치 않다. 최인훈의 〈광장〉, 박경리의 〈토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고작이다. 그런 점에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기독교 문학의 진수’라는 평가와 함께 ‘기독교 문학이 일반 문단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실례’라는 평가만으로 그 가치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듯싶다. 100쇄의 의미가 홍성사만의 것이 아닌 ‘주인공 안요한 목사’와 작가 이창준 선생이 함께 누리는 축제’라고 말하는 홍성사 정재주 사장은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책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한다.

“실명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작가 이창준 선생이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는 가장 탁월한 글쟁이로 남아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홍성사가 20년 동안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출판사로 남아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100쇄의 의미는 결국 세 가지가 어우러진 거죠.”

지식계의 청량제, 홍성신서
홍성사, 흔히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곳으로 알

고 있지만 70년대와 80년대, 한국 지성계를 품어왔던 ‘홍성신서’가 이곳에서 나왔다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70년대 중반, 지식의 공황 상태에 있던 국내 지식인들에게 홍성신서는 청량제였다. 에리히 프롬의 〈소유나 삶이나는 인문 서임에도 불구하고 30만 부가 넘게 팔렸다. ‘복되다’ 디자인’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정병규 씨와 당시 이재철 사장의 출판 기획은 소수 지식인들에게만 머물던 인문서를 대중화한 일대 사건이었다.

지금도 홍성신서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 다시 출간할 계획이 없느냐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사장은 “향수 때문이라면 옛날에 나온 책을 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 래야만 홍성신서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 사장의 말이다.

“여력이 되면 초판본을 모아 정리하려고 해요. 제대로 된 자료실을 만들어 홍성사를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싶습니다. 투쟁적인 사유만이 아니라 순수한 사유의 즐거움과 의식의 확장, 생각의 발전을 가능케 했는지 아니 만큼 사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봐요.”

진정한 이야기가 없는 위기 시대

대화는 자연스럽게 영상 매체로 이어졌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영상 매체, 그 뒤안길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활자 매체. 그러나 정 사장은 활자를, 영상이다 구분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할 뿐, 절대 활자의 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미지만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요? “이미지만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요? “이미지만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요?”

문제는 이야기다. 진정한 문제는 영상 매체의 승

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 진술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이 정 사장의 주장이다. 문제를 지시하고 무엇이 위기인가를 파악해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너도나도 부분적인 영상의 위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정 사장은 말한다.

“아류를 만들지 말고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서야 해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역사가 임재한 곳을 찾아 글로 만들고 웃을 일해서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란한 치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 발로 뛰는 것이 크리스천 출판인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용에 상관없이 그럴싸한 표지를 입혀 독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기보다는 내면 깊이에 있는 정감한 내용을 길어 올려 독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 책쟁이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말과 글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만 영상도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사장의 평소 생각이다. “내용 없는 영상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활자의 발전이 곧 영상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영상까지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거죠.”

‘잘 팔리는 책’과 ‘꼭 내야 하는 책’ 사이 갈등

대표로 일한 지 10년이 지나지만 정 사장은 지금도 매일 ‘잘 팔리는 책’과 ‘꼭 내야 하는 책’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홍성사가 가족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다져온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잘리는 책, 꼭 내야 하는 책을 구분하기 때문에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출판인은 없겠죠. 하지만 원칙만 있다면 쉬이 운 일이지요.” 그래서 홍성사에서 나온 책은 모두 ‘꼭 내야 하는 책’이라고 말하는 정 사장의 원칙

은 의외로 간단하다. “남들이 하지 않은 책, 남들이 만들었어도 어설플, 즉 가치롭게 만들지 못한 책만 하자고 해요. 남의 팔자는 절대로 뺏어 오지 말고, 우리 팔자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딱지 않고……. 수치를 맞추기보다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지혜롭죠. 이제껏 한 번도 많이 팔릴 만한 책인가를 염두에 두고 책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정 사장은 출판을 시작하면서 조건을 구하는 후배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칙을 빨리 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칙을 정하고도 의지를 다 해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등을 생각하면 선택해야 할 사장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사장은 “딜레마가 생길 때마다 원칙을 정하는 거죠. 의사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라고 대답한다. “저자가 우리를 믿고 출판권을 주었으니 저자가 책을 내겠다고 최소한의 양이라도 책을 찍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요. 개정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개정판을 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지요.”

문제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열심히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딜레마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 이윤을 추구하죠.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요? 물질로부터 더 자유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먼저 겸손해야만 가능하죠. 우리는 결국 그 실험대 위

에서 살고 있어요.”

글 ● 〈빛과소금〉장동석 기자

※이 글은 〈빛과 소금〉 2002년 1월 1일자(총량 215호/제4권 27호) ‘고리를 무는 인터뷰’에 실린 기사로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게재를 허락한 〈빛과 소금〉에 감사드립니다.

〈주간 기독교〉이성숙 기자, 콤에 머물다

도시 속의 정자나무 홍성사 북카페



우리가 그러는 고향 마을에는 어김없이 들어가는 풍경이 있다. 나그네의 아픈 다리를 쉬여가게 하는 정자나무 그늘, 근 20년의 세월 동안 ‘민음의 글방’ 시리즈를 꾸준히 출간하고 있는 기독교 출판사 홍성사에서 북카페 ‘콤’을 마련했다.

지난해 초겨울 문을 연 콤은 지역 주민의 사랑방이 되어 주고, 안화진 외국인복지공원과 철두산 순교기념관을 방문하고 내려오는 순례자들이 잠시 다리를 펴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아이들은 여기서 편한 자세로 숙제를 하기도 하고 책을 보고 가기도 하죠. 파출소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동네 사람들도 지나다 들려 물 한 잔 마시기도 하구요. 주민들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아요.”

콤을 관리하고 있는 이순이 대리는 주민들과 좀 허전 거리기 사투 자랑스러운 눈치다. 지친 나그네가 다리를 쉬어 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으로 문을 연 콤, 이웃과

의 벽을 허물고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무더위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양화진과 철두산을 찾아 신앙 선배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고 들어오는 길에 콤에 들려 시원한 생수 한 모금, 민음의 글 한 줄 읽어 보면 어떨까. 마가복음 5장 41절의 달리다름에서 따온 ‘콤’이라는 이름에는 책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려는 ‘콤’이 담겨 있다. ※문의 02)333-5161(교량:200)

홍성사 〈주간기독교〉이성숙 기자

※이 글은 〈주간 기독교〉 2002년 7월 28일자(1476호) 발간이 머무는 곳 취재 기사로,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기사 게재를 허락한 〈주간 기독교〉에 감사드립니다.